

제28호

# 同窓會誌



空軍士官學校總同窓會

# 꿈 · 우리의 희망

##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 자원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전문 공기업



#### 해외광물자원개발

- 자원정보 수집 · 제공, 자원개발협력조사
- 광산조사, 사업타당성평가, 자금지원

#### 국내광물자원개발

- 광산조사, 광산평가, 시험분석
- 기술지도, 안전관리, 자금지원

#### 북한광물자원개발

- 자원정보 수집 · 제공
- 광산조사, 개발타당성조사

#### 석재산업육성

- 석재자원조사, 기술지도, 석재기능공 양성

#### 자원기술 연구개발

- 광물 부가가치 향상기술 연구개발



대한공업진흥공사



- 2 취임식
- 6 신년사
- 7 동창회소식

### 특별기고

- 10 北의 對南 統一戰略과 越盟
- 13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모색

### 독자기고

- 18 人生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知慧
- 23 GOLF MANNER 독백
- 25 페니키아의 영광을 꿈꾸는 나라, 레바논
- 29 웃고 삼시다

### 생활상식

- 31 택의 실내 공기는 안전합니까?
- 35 이럴땐 어떻게 호칭을 할까요?
- 40 유통상식(프랜차이즈 시스템)

### 총동창회 소식

- 45 이사회
- 46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 53 기수별 활동
- 54 미주 서부지회 소식
- 55 동문 친선 바둑 대회
- 56 전역자 현황
- 57 공사 졸업 동기생회 명칭
- 58 주소변경
- 60 알립니다



발행일자/2003년 (제28호)

발행인/공사총동창회장

발행처/공사총동창회

T. 02-823-1091

군. 923-6792

편집·디자인·인쇄/공군교재창



# 하늘로! 우주로!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이 한 호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중장 천 기 광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중장 김 명 립

# 축하드립니다

공사 제2기 사관 임관 50주년



경사 제2기 사관 임관 50주년



▼ 50년 전 퍼레이드



생도축하 퍼레이드



50년 전 내무검사 준비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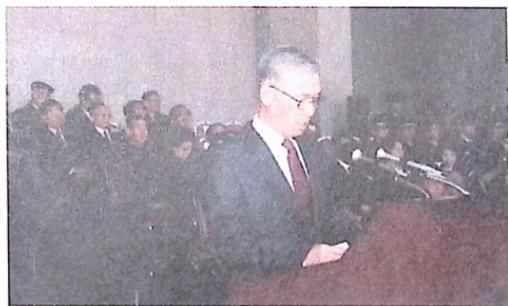
여생도 내무검사 준비 끝!





2기 회장 사열

▼ 이승만 대통령 사열



2기 회장 답사



# 신년사

총동창회장 이광학

희망찬 甲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동창회원 여러분과 각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癸未年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특별히 지난 해는 惡性 颱風의 天災와 人災로 인한 교통참사와 국내·외적 여건으로 인한 長期 경제의 침체, 그리고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른 극심한 국론분열의 渦中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골간이 흔들리는 안보상의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총동창회는 우리 母軍의 영공 수호를 위한 방위임무를 성원하고 격려해야 하는 예비역 회원들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를 위해 국론 결집을 촉구하는 제반 행사에 과감하게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정부당국의 합당한 판단과 추가조치가 있었고, 경제관련 각종 指標도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어, 새해에는 확연한 서광이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 같은 바람입니다.

우리 동창회 역사 내·외적 여건 속에서 활동이 다소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목 단체인 동창회 발전은 내적 충실과 외적 가시성효과가 합치될 때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회는 외적 가시성효과 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내적 충실에 보다 역점을 두고 회원들 간 공동체정신의 내적결집에 더욱 노력코자 합니다.

한편 동문간 지속적인 친선/친목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의 2기 사관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는 母校를 비롯한 관련 부대의 선·후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아울러 처음 개최한 제1회 동문 친선바둑대회를 통해 확인된 선·후배 기수간의 깊은 情意와 紐帶感이 더욱 돈독하게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화 시대에 회원간의 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총동창회와 기생회의 홈페이지간 정보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 구성에 남은 기간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에 동창회원 여러분과 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 '03. 06. 17.)

공사총동창회는 정기총회에서 이광학 전 참모총장을 제11차년도 회장으로 하는 11기 운영기수의 회장단이 출범하여 1년간 총동창회의 업무를 10차년도 운영기수인 10기 사관으로부터 인수하였다.



### 공사총동창회 이사회 개최 ( '03. 07. 22.)

제11차년도 임원기수(3기~31기)의 회장단이 참석하여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1. 사업계획 및 기금 조성(안)
2. 총동창회보 紙型 변경
3. 임관 50주년 행사 지원
4. 상부상조 제도화(哀事)
5. 동문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심의 의결(단, 4번 항목 제외)하였다.



공군본부 참모총장 예방



공군사관학교 방문



제18전투비행단 방문

제20전투비행단 방문



이한호 공군참모총장  
예비역단체장 예방



육사총동창회장 및 임원 본회 방문



# 北의 對南 統一戰略과 越盟



강용구(전 공군 정훈감)

**오** 늘날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전환기에 살고 있다.

지난 20세기는 명암이 교차한 격동의 한 세기였다. 20세기는 전반기를 통해 두 번의 세계대전과 파시즘, 나치즘의 흥망을 경험했고, 후반기의 냉전 질서를 통해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경험했다. 20세기는 식민지 지배의 종언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시기이기도 했다. 냉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우리는 통일과 평화라는 과제를 떠 안은 채 새로운 세기로 들어섰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국제 질서의 개편과 국가 주권의 개념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달성에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격동의 20세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자리 잡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분단이라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한 역사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치렀던 약조건을 극복하고 국권을 수호할 수 있는 국가비전과 전략이 미흡했다는 데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전환기를 맞아 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

## 북의 대남전략의 근본은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완, 한미동맹의 이간, 국론분열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혼란은 바로 북의 전략에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한다.

로 점철된 민족의 시련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 왔던 민족정체성을 새롭게 일깨워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지정학적 한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를 과감하게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리의 선택은 바로 미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보장하며 평화가 실현되는 통일인 것이다.

2000년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은 틀림 없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최근에 특검에서 밝혀진 5억불의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가져다 준 긍정적으로는 55년간 반목과 적대시 해온 남북이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성과로 인정되지만 북한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이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남남갈등, 반목,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안보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대남전략의 근본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완, 한미동맹의 이간, 국론분열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혼란은 바로 북의 전략에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남남적화를 획책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나 여당에서는 진보와 개혁을 앞세워 친북 내지 좌경 성향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한국은 중국보다 사회주의적이라고 뉴스워킹지는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위기상황에 처한 현실에서 28년 전 공산통일된 월남의 교훈을 되새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 2차대전 직후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은 각기 자유민주주의 체제국가를 출범시키며 북쪽의 공산정권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親共은 禁忌였다. 이 禁忌는 1967년 9월 월남의 대통령 선거로 깨졌다. 선거결과 「웬바티우」가 당선 됐지만 미국의 북쪽을 반대하오던 「쥬디우」가 2등이 되면서 정계에 새로운 인물로 부상되었다. 그는 미의회의 유력한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인맥이 있어 미국을 파리평화회담에 끌어들었다.

1968년 5월 파리에서 미국과 월맹이 평화협상을 시작했고 이듬해 1월에 월남과 베트남 대표단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4년 8개월 간에 걸친 지루한 협상 끝에 1973년 1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됐다. 파리평화협정은 한마디로 평화적 자유총선에 의한 통일 달성이 규정 되어 있었다. 당시 월남에서는 걸으로는 평화와 안정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듯 했다. 왜냐하면 파리협정체결의 주역인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와 월맹 정치국원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고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으며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답사단이 입국활동을 하는 등 경사가 겹치다 보니 월남인들은 국방을 소홀히 하게 됐고 더구나 1975년 9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연일 반정부시위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상태였다. 반면 월맹은 극비리에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 총공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1974년 10월 월맹 하노이에서 열린 공산당 정치국과 군사위원회 합동 비밀회의에서는 남침을 감행하더라도 미국은 국내 반전여론으로 월남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1975년 1월 정치국회의에서 18개 사단 등 모든 병력을 북위17도선 이남에 배치하고 월남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드디어 1975년 3월 10일 새벽을 기해 총공세에 돌입 월맹은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독립궁을 점령 무조건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었다. 월맹은 공산화통일 직후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였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1975년 5월 2일부터 학살행위를 중단하고 그 대신 「인간개조교육센터」라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이른바 반역자 반동분

자를 집단 수용 인간 이하의 학대를 했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생지옥 같은 수용생활은 무려 11년이 지난 뒤 1986년 소련의 개방 바람 속에 공산 베트남이 「도이모이」정책을 채택하여 「인간개조교육센터」가 문을 닫게 되었다.

우리는 월남패망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적화전략은 월맹의 그것과 한치의 차이도 없다. 이는 김정일이 살아있는 동안 변치 않을 것이다. 「민족지상」이니 「자주」니 「평화」니 하는 것은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용어전술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절체 절명의 가치인데도 진보를 가장해서 상황판단을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수호세력은 이제 침묵을 깨고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월남 패망의 전철을 피할 수 있고 세계 속에 우뚝서는 동방의 햇불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공사 6기  
공군 대령(예)  
현 민주시대대학교수

#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모색

김 규(전 방공포병 사령관)



## I. 서 언

한국의 역사는 내적으로는 안보태세 소홀과 외적으로는 국제관계 대처에 미숙하여 980여 회의 전화(戰禍)에 시달려 왔고, 그때마다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위상은 여지없이 추락했으며, 세계적 문화 유산은 약탈되고, 소실되었다. 마침내 20세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주권과 국호마저 빼앗기고 민족의 맥마저 단절될 뻔 했던 식민지배를 자초하였다.

이는 한반도가 생태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특성 속에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연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에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화'라는 21세기의 무한 경쟁 시대에도 변함 없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국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고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할 국가 안보전략 수립은 민족의 생존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의 생존을 담보할 국가의 안보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순수한 자력에 의한 독자안보(절대안보), 둘째, 동맹에 의한 공동안보(동맹안보), 셋째, 국제기구나 지역안보체제에 의한 협력 안보 등이다.

이들 중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판단 기준은 '자국의 생존을 최고 가치로 하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평화 지향적이며,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 확립'에 원칙을 두어야 할 것이다. 냉엄한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나만의 국가 번영은 불가하므로 확고한 안보태세하에 호혜, 평등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세계의 우위와 질서 그리고 반미 분위기 속에서도 힘 우위의 일방주의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능력 구비를 위해 경쟁국들이 감히 엄두도 못낼 월등한 과학기술 개발과 군사혁신(RMA)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세계화 질서와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 세계의 역학구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민족적 자긍심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 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II. 21세기 동북아 4강의 안보전략

21세기 문턱은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약소국들에 의한 테러리즘, 비대칭 무기체제와 군사기술의 확산에 의한 초국가적 위협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4가지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뿌리깊은 역사적 갈등과 불신의 잔존, 둘째 냉전체제하의 갈등구조가 탈

*자국의 생존을 최고 가치로 하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평화 지향적이며,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 확립에  
원칙을 두어야 할 것이다.*

*냉엄한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나만의 국가  
번영은 불가하므로 확고한 안보태세하에  
호혜, 평등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 이후에도 지속되며, 셋째 미국의 세계전략 중심이 아시아로 전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강대국간의 갈등, 넷째 미국의 유도탄 방어계획(MD: Missile Defense) 추진에 따른 러시아 및 중국과의 갈등 등이다. 이러한 특징 속에 동북아 안보환경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대립과 화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의 대결구조와 세력균형을 특징으로 한 양극체제였으나, 탈 냉전 이후에는 미국을 초극으로 하고 일본·중국 중심의 두 소극과 기회만 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가 대립하는 구조적 다극화 현상이 구축되고 있다. 반면에 이념과 체제의 경쟁과 대결에서 정치적 화해와 경제적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번영과 국제 평화를 달성하려는

국면도 전개되면서 각국은 그들의 국익 신장을 위한 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동맹 및 우방에 대해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신시키고(Assure),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군사력과 야심을 갖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며(Dissuade), 위협을 억제하고(Deter), 강압에 대응하는(Respond) 한편, 미국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 및 방법으로 결정적으로 격퇴시키(Decisively Defeat)는 '확신-단념-억제-격퇴'의 힘 우위 방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의거하여 부시는 세계전략의 중심을 아시아로 전환하고, 잠재적 위협 세력인 중국의 견제,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MD(Missile Defenes)구축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를 가하면서, 한·미·일 동맹체제는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다.

중국은 국방력의 공고화, 국외 침략저지, 국내 무장봉기의 불허, 국가주권 및 영토의 보존과 안전 수호를 정책화 하고 있다. 이에 바탕을 두고 인력 집약적인 군 구조를 기술 집약적인 군 구조로 전환하고, 대만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지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며, 선진 군사기술 습득을 위한 군사강국과의 군사교류 활성화, 군비통제 및 군축을 위한 국제 안보대화에도 적극 참여 하면서 남북 등거리 유지와 대 한국 경제교류 증가 등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반 서구적인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미국 주도의 단극질서를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복원하여 견제하려고 한다. 또한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동북아의 전쟁에 방과 집단안보 추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전방위 기동방위전략에 의거하여 전략적 첨단과학무기체계의 개발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 주도하의 국제질서에 편입하고 미·일 안보체제하에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기초하에 중국의 경제 도약과 군사력의 현대화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따른 대응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냉전이후의 전략환경 변화를 고려한 방위계획 대강 수정, 미·일 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과 그 틀 속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 모색, 군사력의 합리화·효율화를 위한 전력의 질적 향상, 유사법제의 도입, 집단 자위권의 인정 등 군사체제 정비와 PKO 등 국제협력에 참가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 Ⅲ. 한반도의 안보 상황

한국은 이념 투쟁이었던 내쟁형 국제전적 성격의 한국전쟁의 참상 경험과 반세기 간에 걸친 소모적 체제 대결이 남북간에 긴장과 국력의 낭비만 가져오고 통일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우선 남북 화해와 신뢰 구축

및 공동 번영 후 평화통일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였다.

한편 북한은 세계사회주의의 몰락과 경제난 등으로 인한 체제위기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과 대남 적화전략' 기조하에 경제 회생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교류 증진 그리고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핵 카드 활용'과 '선군정치' 등으로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의 내재적 한계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절대적 경제우위를 과신하고 체제경쟁 승리의 자만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의 확산, 자유민주체제의 부정적인 면들의 증폭 그리고 햇볕정책 수행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남남갈등의 심화는 국민 총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감성적, 민족주의적 반미정서 확산은 한국 안보의 큰 축인 한·미 동맹체제에 균열을 조장하여 총체적 안보태세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IV. 한국의 안보전략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는 국가정책의 최선의 기준이며, 이에 바탕을 둔 국가 안보전략은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추구되어 왔다. 무한경



쟁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과 미래의 국가 안보를 보장할 21세기의 안보전략은 역사적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당리당락과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고 국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이익은 첫째, 자유 민주주의 이념 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 둘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및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 셋째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이에 바탕을 둔 국가목표는 (1) 국가이익 확보, (2)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대상으로 영토 보전과 국토 통일, (3) 내국인과 재외동포를 포괄한 국민 보호, (4)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두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안보전략은 주권 국가로서 필요한 위상과 역량을 확보한 바탕위에 주변국가들과의 상황적응 안보능력의 제고, 자유·민주·복지·인권이 보장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대할 수 있는 '협력안보체제에 중심을 둔 동맹안보체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자주적 전비태세 유지 발전에 필요한 적정

국방비 확보,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기술집약형 첨단전력 확보 및 동맹안보체제 공고화 그리고 선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군사 지식과 군사교리 습득체계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통일 이전의 대북 군사전략은 안보전략에 기반하여 한·미 동맹체제에 의한 전쟁 억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도발 시는 강력한 응징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는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군사력의 역할 확대와 능력 신장 방안을 동시 추구하되 어느 일국의 배타적 영향권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우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적 안보 태세 미흡으로 인한 수난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를 '높은 민족적 응집력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민족의 자존심과 맥을 이어왔다'는 변명으로 자위해 왔다.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국가의 비운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틀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질서의 재편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평화통일' '복지사회 건설' '국위 선양'

과 '세계평화에 기여'라는 기본 틀 속에서 '협력안보체제에 중심을 둔 동맹안보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은 첫째, 주권국가로서 위상에 합당한 군사태세를 갖출 수 있는 GDP 대비 3.5%의 국방비 확보, 둘째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군사혁신과 기술집약형 첨단전력으로 무장한 군사력 건설, 셋째 지역안보체제를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 확립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전략은, (1) 통일 이전에는 대북 전쟁 억제와 도발 시에는 섬멸적 격퇴, (2) 통일 이후에는 주변 강국 중 어느 일국의 배타적 영향권 편입 거부, (3) 이의 실패로 충돌 불가피 시에는 지역안보체제를 기본틀로 한 동맹체제를 활용한 격퇴 개념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역사적 전쟁 참화의 교훈을 거울삼아 평시의 국방 투자는 미래의 생명보험임을 국민의 식화 해야 한다. 점점 경시되고 있는 '상무정신(尙武精神)'을 국민 정성으로 승화시키고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총화 단결을 모색하여 국가 안보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 안전보장이야말로 국가 과제 중 가장 큰 과제(兵者國之大事)이기 때문이다.

육사 27기  
공군 소장(예)  
현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 人生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知慧



명영남(현 군사문제 연구원 고문)

21세기는 인류가 세 번째 맞이하는 천년기(millennium)로 과학과 의학, 문명생활의 급속한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대폭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여가시간이 많아져 풍요로운 인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풍요와 여가 이면(裏面)에는 가정과 친구와 사회 등 따뜻한 정이나 인간관계의 단절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Cyber인간세대<sup>註1</sup>, Smug세대<sup>註2</sup>, Job Nomad(직업유목민)세대<sup>註3</sup>의 냉혹한 비인간화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감옥과 같은 생활, 지옥과 같은 삶,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生不如死의 인생이 될 것이다.

장조적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첫째, 건강해야 하며

둘째, 자기일과 취미가 있어야 하며

셋째, 사랑받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넷째, 희망이 있어야 한다.

- 註 1 : 세대라는 것은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다. 강렬한 역사적 사건의 충격을 느끼고 그 사건에 대해 공동된 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 註 2 : Smart, Mobile, Upward, Global의 약자로 젊고 교육받은 그리고 여행 경험이 풍부하고 야심만만한 새로운 세대
- 註 3 : 직업유목민 세대는 IT전자제품 등을 이용하여 신속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할 일을 찾아서 세계각지를 매우 빠르게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어디에도 집을 갖지 않는 세대

## 1 健康 해야 한다.

건강에는 自由가 있다.

건강은 모든 自由 中에서 첫째가는 것이다.

- 아미엘(1821~1881)

건강의 유지는 자기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다.

-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

건강은 인간의 기본가치요 기초자본이요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건강이란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세계 보건기구 대헌장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신체에 결함이나 병이 없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행복(Well-being)한 상태이다.

산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이다. 장수한다는 것은 긴 세월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하게 생을 느끼는 데 있다. 세상에는 일백년의 장수를 누리면서도 출생 후 곧 사망한 것과 같은 헛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무덤 속에 들어가더라도 훌륭하게 산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일 것이라고 루소는 “에밀”에서 말하고 있다.

人生을 살아가는데 이상적 건강은 자기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건강이다.

筆者는 三多二小一禁(보라매 소식지 제17호 2001. 1. 2에 紹介)의 생활로 이러한 健康을 維持하기 위해서 努力하고 있다.

三多是 多動, 多安, 多接으로

多動은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여 육체건강을 多安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적 건강을

多接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과 만나 교류함으로 사회적 건강을 유지한다.

二小는 小食, 小飲으로

小食은 음식을 적게 먹고(節食)

小飲은 술은 적게 마시어(節酒)

養生과 養命을 도모한다.

一禁은 禁煙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을 뿐 아니라 담배연기를 기피함으로 흡연관련 각종 질환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건강을 잃고 늙게 되면 걸지도, 활동하지도 취미·여가 시간도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족, 친구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며 격리되어 고독과 외로움으로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 당하며 고독하고 불행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건강은 人間에게 自由를 부여한다. 自由를 원하면 건강해야 한다.

## 2 할 일이 있어야 한다.

타인의 생활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의 생활을 즐기어라.

- 콩 도르세(1743~1794)

인간이 70이 되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 두뇌가 왕성한 청소년 시절에 흥미를 느껴야 할 무

수한 사물에 태만했던 증거다. 70이 되어 은거하는 사람은 아마 3년도 못 가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 에디슨(1847~1931)

사람은 누구나 자기일, 평생 추구하는 취미(Life Work)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한다. 현대인은 고독하며 노인이 되면 더 고독하다. 자식이 슬하에서 떠나고 동고동락한 배우자와 사별(死別)하고, 친구마저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 심한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독은 공허감과 소외감과 권태감을 느끼게 한다. 일생의 고독을 이기려면 평생 추구하는 자기일과 항상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있고 오락이 있어야 한다. 예술과 독서에 심취하거나, golf에 몰두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바둑을 즐기거나 자기의 천분과 취미에 맞는 자기 일을 가려야 한다.

論語에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라는 말이 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모든 일과 취미에는 知와 好와 樂의 세관계가 있다. 樂의 단계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경지이다.

人生을 같이 즐기는 동반자나 벗과 친구가 있어야 삶을 풍요롭게 하며, 人生의 폭을 보다 깊고 넓게 할 수 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의 진면목을 묻

는 현상광고를 낸 적이 있었다.

‘즐거움을 배로 늘리고 슬픔을 반으로 나누는 사람’

‘침묵(이심전심)을 이해하는 사람’

‘항상 진심을 알려주고 결코 쉬는 일이 없는 과수꾼’

그런데 영예를 차지한 내용은

‘친구란 온 세상이 망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 이었다.

日本의 수학천재 기꾸지와 영국수학천재 브라운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친구로서 동문수학 한 적이 있다. 그들의 관계를 아는 옥스포드 대학생과 영국인들은 민족적 열등감과 자부심의 손상을 느끼고 있었다. 대학교 성적이 항상 기꾸지가 1등, 브라운이 2등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수학도중 중요한 시기에 기꾸지가 감기에 감염되어 2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이번만큼은 브라운이 1등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은 기대하고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다시 日本人 기꾸지가 1등을 차지했다. 브라운은 2주간 배운 내용을 수시로 기꾸지를 찾아가 가르쳐주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친구로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끝이 났을 때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면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친구라면 한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애송할

때마다 새로운 감격과 넘치는 기쁨을 느끼게 한다.

##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히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땀던 배 끼치는 시간  
구멍대 서로 사양하며  
너맡은 재발 살어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함성보다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3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참된 영속적 사랑은 존경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 피히테 (1762~1814)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 괴테(1749~1832)

生即愛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人間的 사랑에는 혈족애(Storge), 남녀간의 사랑(Eros), 우정의 사랑(Philia), 종교적 사랑(Agape)이 있는데, 미국의 사회학자인 프롬(1900~1980)은 Strong Society에서 창조적 사랑에는 5가지 속성이 있다 한다.

첫째, 관심(Concern)을 가져야 한다.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깊고 뜨거운 관심, 진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존경(Respect)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랑은 서로 존경하는 것이며,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셋째, 책임감(Responsibility)을 가져야 한다.

책임은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며 나를 부를 때 내가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책임은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맡은 의무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격은 책임능력이라고 하였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인격이다.

넷째,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해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해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화목을 가져오고 화목은 행복을 초대한다.

다섯째,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요 주는 마음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수수적(授受的) 존재, 주고 받는 존재이다. Give and Take는 인간생활의 기본 법칙이다. 그러나 우리는 받겠다는 생각보다 주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 주는 것을 배워야 한다.

#### 4 **希望과 꿈(Dream)이 있어야 한다.**

늦기 시작하는 것은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다. - 지미 카터

희망은 깨어있는 자의 꿈이다.

-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

人間은 希望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희망은 인생의 활력소요, 생활의 원동력이다.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이 있는 곳에 광명이 있고, 환희가 있다. 환희가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희망을 갖으려면 사고(思考)의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밝은 사고, 책임적 사고, 진취적 사고를 가질 때 희망이 솟아난다.

人間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

니다. 희망과 꿈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는다.

세월이 흐르면 얼굴(피부)에 주름살이 지지만 희망을 잃으면 영혼의 얼굴에 주름살이 진다.

맥아더 원수는 이러한 죄우명을 실천하면서 생활하였기에 祖國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 **生即夢, Living is dreaming**

산다는 것은 꿈을 갖는 것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노력 하는 것이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 날 막을 이 오직 신뿐이라고 질풍처럼 내달리면서 선이 굵은 삶을 추구했던 알렉산더는 위대한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마케도니아 대제국을 건설하고 찬란한 헤레니즘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었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거든 지나간 일을 공연히 염려하지 말고, 좀처럼 화내지 말며 특히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신에게 맡겨라.’

이러한 괴테의 말을 반추하면서 정직과 건강의 기초 위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자기일(Something to do)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Something to love) 하면서 희망(Something to hope)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때, 그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리라 믿는다.

공사 11기  
공군 준장(예)  
전투비행단장 역임

# GOLF MANNER 독백

안병문(에 공군준장)

흔히들 GOLF는 나이를 먹어 가면서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중의 하나라고들 합니다.

필자는 역시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한 사람입니다. 넓게 펼쳐진 초원의 잔디 위를 걸어 가면서(Green),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Oxygen), 밝은 햇살을 온 몸에 받으며(Light),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도 나누면서 무리하지 않는 운동 시간을 동료들과(Friend)같이 가진다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내게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합성하여 만든 말이 "GOLF"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고 무리하지 않게 건강 관리를 하는데 더없이 좋은 운동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단점도 없지 않습니다.

첫째는 시간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GOLF장에 오고 가는 시간과 ROUNDING 시간을 합치면 하루를 완전히 보내게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다른 운동에 비하여 경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해방 전이나 지금이나 GOLF를 한번 할려면 쌀 한 가마니(80kg)값이 넘는 경비가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산업화 사회의 영향으로 선득 이해가 잘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경 사회시대나 지금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얼마나 비싼 운동인가를 느낄 것입니다.

세번째는 같이 GOLF를 할 수 있는 친구 네 사람, 즉 TEAM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맞고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친구 넷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



는 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진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관계로 TEAM을 구성하여 운동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관계의 주 원인은 바로 GOLF MANNER입니다. 예를들어 언제든지 GOLF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다섯명이 있다고 합시다. 다섯명 중에서 어느 누가 BOOKING을 하던시간에 한 사람은 운동 약속을 하는 TEAM에서 빠지게 되는데, 누가 제일 많이 빠지게 되느냐하면 바로 GOLF MANNER가 제일 나쁜 친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GOLF RULE의 제1조가 바로 에티켓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비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같이 ROUNDING 할 네명의 TEAM 구성도 어려운 이런 까다로운 조건의 운동이기는 하지만 GOLF가 연전히 그 명성을 이어가고 사랑을 받는 것은 SCORE에 도전하는 스피드와 자기와의 싸움으로 인생을 배우고 에티켓을 지키는 정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GOLF에 관하여 이야기 하자면 필자는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람도 있고 궁지도 있지만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긴 공군생활을 마친 덕택으로 비록 PUBLIC COURSE 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공군 기지에서(때로는 멀리 가기도 하지만) 저렴한 경비로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쌀

한 가마니 팔아서 일반 GOLF장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싸게 또 쉽게 軍 GOLF장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SCORE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ROUNDING하는 동료에게 지켜 주어야 할 에티켓에 대하여는 소홀하지 않은가 한번쯤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GOLF장에서 지켜야 할 RULE을 무시하는 것은 같이 ROUNDING을 하고 있는 동반자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모든 운동 경기가 같겠지만 GOLF도 RULE을 적용할 때는 자기에게는 엄하게, 반면 상대방에게는 편하게 적용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즐거운 운동이 되겠지만 그 반대로 너무 자기의 SCORE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동반자에게는 부정적하게 보이거나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좋은 운동인 만큼 말 없이 진행되는 동안 내가 지켜야 할 에티켓과 RULE 준수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신사들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GOLF에서 SINGLE이라면 SCORE만 좋다고 SINGLE이 아니라 MANNER에서부터 모범이 되어야만 진정한 SINGLE 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GOLF에 관하여 아직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너무 길어서 턱두리로 들리지 않기 위해 이만 끝내겠습니다.

공사 11기 공군 준장(예)

## 페니키아의 영광을 꿈꾸는 나라,

# 레바논



이기현(전 주 레바논 대사)

얼마 전 모 일간지 1면에 팔레스타인 측에서 일으킨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서쪽으로 15km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훈련 캠프를 20년만에 다시 공습했다는 기사가 눈에 번쩍 띄었다.

시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주 들어왔겠지만, 레바논이 시리아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공습했다는 훈련 캠프가 레바논의 베카 계곡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은 거의 생소하리라 생각된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레바논' 하면 떠오른 것들은, 중동 국가이니 사막지대로 무더운 날씨와 이스라엘의 폭격이 자주 있었던 중동의 화약고라는 정도일 것이다.

레바논. 레바논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레바논은 지리적으로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해 주는 길목에 있다. 레바논은 남쪽으로 이스라엘과 북동쪽으로 시리아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질푸른 지중해를 끼고 있다. '레바논'이라는 국명은 '하얗다'라는 뜻의 아랍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황량한 중동 땅에서, 유독 레바논에는 2~3000m의 험준한 산맥이 남북으로 펼쳐져 있어 겨울이면 눈이 하얗게 쌓인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예로부터 레바논을 '하얗다'고 이름지었던가 보다. 또한 레바논은 성경에 나오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일부로서,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농업과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각종 과일과 야채 및 유제품이 풍부한 축복 받은 땅이다.

레바논은 이처럼 좋은 지리적 위치와 살기에 적합한 기후 등으로 인해, 고대로부터 인류가 정착하여 크고 작은 도시국가를 만들어 왔다. 아울러 지중해와 맞닿은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레바논 사람들은 예로부터 바다를 누비며 해상무역을 활발히 해왔다. 그들이 바로 세계사에 큰 공헌을 하였던 페니키아인들이다. 페니키아 상인들은 천부적인 장사수완으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유럽 대륙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활발한 상업 활동을 했으며, 곳곳에 식민지도 건설했던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인류사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이들이

개발한 문자가 바로 오늘날 알파벳의 원조인 페니키아 문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근세기에 들어서도, 주변 아랍국인들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사막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때, 레바논은 타고난 장사 솜씨와 중동의 관문 위치를 잘 살려 남보다 한발 앞서 서구화, 근대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옛날 페니키아 시대의 황금빛 번영을 다시 누리게 된다.

이 때에 '중동의 PARIS', '중동의 진주'라는 별칭이 지중해변의 작은 나라 레바논에 붙여지게 된다. 내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70년대만 해도 이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의 웬만한 선진국가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농담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PARIS에서 찾을 수 없다면 BEIRUT에 가면 된다'고 하였는데, 현재 내전으로 피폐해진 레바논 사람들은 그때의 번영에 대한 질은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레바논 내전은 1975년경 발발하여 1990년도 초에 막을 내렸다. 내전의 동기는 매우 복잡하다. '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면서, 인근지역으로 난민들이 유입되는데, 그 여파는 레바논에도 미치게 된다. 70년도에 들어서면서, 팔레스타인 본부가 레바논의 수도 BEIRUT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두고 레바논의 기독교파와 회교파 간

에 의견대립이 생겼다. 기독교파의 입장은 난민의 유입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들이면, 레바논이 점점 아랍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파는 유럽화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난민의 유입을 곱게 볼 리 없었다. 반면, 회교파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현재의 기독교계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권력 구조를,

팔레스타인 난민의 유입을 계기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회교계의 세를 늘리고, 인구비례를 통해 파워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

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레바논은 본래 1945년경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래, 기독교계와 회교계 간의 알력이 존재하였는데,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을 계기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었고, 급기야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레바논은 피비린내나는 내전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이로 볼 때, 레바논 내전은 표면상으로는 종교 분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 고위층의 권력투쟁에 단지 종교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그런데 레바논을 더욱 처참하게 만든 것은 주변 국가, 특히 이스라엘의 개입이다. 내전이 치열하게 달아오르던 80년대 초 회교계가 우세해지자,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든가 명분하에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여 강제 점령하게 된다. 이 점령은 2000년 5월 22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막을 내리긴 하였지만, 레바논에 있어서는 실로 20여 년에 걸친 치욕과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된 불행한 시기였다.

한편, 시리아는 레바논 내전 당시 이웃나라이자 오랜 맹방으로서 레바논의 안보와 중동 평화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대규모의 시리아 병력을 레바논에 파견하게 된다. 그러나 내전 후에도 시리아군은 레바논에 잔류함으로써 레바논을 마치 시리아의 속국처럼 대하고 있으며, 실



제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레바논의 지도부는 의례적으로 시리아에 가서 협의를 하곤 하는데, 만일 시리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레바논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또한 다른 제3국 노동자가 노동 비자를 받는데 무척 엄격하고 까다로운 반면, 시리아 사람은 레바논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 정부에 한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레바논의 의식있는 계층은 레바논이 아직도 시리아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였고 비판하면서, 지도부의 친 시리아 성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

들은 종종 거리로 뛰어나와 '시리아는 물러가라'며 레바논의 실질적 독립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내전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전의 상흔은 아직 레바논 곳곳에 남아있다. 현재 전후 재건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리 곳곳에는 총탄 자국으로 얼룩진 건물들이 즐비하며, 심지어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흉물스러운 건물들도 종종 눈에 띈다.

영어 단어 Phoenix라는 뜻은 불사조를 의미인데, 묘하게도 Phoenix는 고대어의 페니키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레바논은 불사조와 같이 다시 한번 잿더미에서 부활하여 옛 페니키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레바논 정부는 90년도 이래 재건 복구사업에 총력을 경주하여, 중동의 Paris, 중동의 진주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먼저 레바논 재건의 장애 요인으로 주변 정세의 불안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다. 2000년 5월 22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국경지대에서는 헤즈볼라 게릴라와 이스라엘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헤즈볼라는 시아파 무슬림에서 태동한 일종의 민족 해방군으로서, 시아파의 중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내에서도 하나의 정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무장 단체이다. 때문에 레바논으로서도 손을 쓸 수 없는 독립세력으로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성전을 부르짖는 한 레바논의 안보 역시 보장 받기 어렵다.

둘째, 구조적인 정치 불안을 들 수 있다. 레바논은 아직까지 기독교파와 회교파간에 권력을 양분하여 운영하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양측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부 정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게 된다.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다른 기독교파와 회교파를 동등하게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레바논이 지니는 구조적인 난제이다. 때문에 레바논은 인구 400만의 작은 나라임에도 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고, 양측의 권력다툼이나 이권다툼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만성적 재정 적자를 들 수 있다. 내전이 발발하기 전, 레바논은 든든한 국고를 자랑하며 국민에게 세금을 거의 징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15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레바논 정부는 현재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레바논의 주 수입원은 중개무역과 관광, 그리고 금융업인데, 현재 이 중 어느 분야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레바논은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제조업이 전무하다시피하므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무역수지는 엄청난 적

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여기저기서 차관을 도입하고 유로본드를 발행하여 자금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제한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레바논의 불사조와 같은 화려한 재건은 요원하기만 한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레바논에는 레바논인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잠시 소개하였듯, 레바논 사람들은 명민한 머리와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영어와 불어에 능통하며 개방적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레바논의 교육수준이 중동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페니키아 상인들의 후예답게 레바논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자국민의 4배에 달하는 1,500여 만 명의 해외교포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며,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귀중한 인적 자원들이 한데 힘을 모아 레바논의 변명을 도모한다면, 머지않아 재건과 영화로운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에 중동 평화가 조기에 이루어져, 성서적으로는 백향목(Cedar)의 고장이자 '젓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옛 페니키아의 영광이 재현되어 중동의 진주로 다시 태어 나기를 바란다.

공사 13기  
공군 중장(예)  
작전사령관 역임



# 웃고 삽시다

## 1. 열쇠

몹시 취한 사내가 아파트 문 열쇠를 끼우지 못해 애쓰고 있었다. 이때 지나가던 주민이 친절하게 말했다.

행인 : 열쇠를 제가 끼워 드릴까요?

사내 : 그럴 필요는 없고, 이 집이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아 주기만 하면 돼요. 열쇠는 내가 끼울테니까!

## 2. 골목에서

어떤 아이가 골목길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더라.

아이 : 으앙 ~ ~ ~

노인 : (지나다가) 왜 우니?

아이 : 아빠랑 엄마랑 막 싸우고 있어요. 아무거나 막 집어던지면서요. 으앙 ~ ~ ~

노인 : 저런 도대체 네 아빠가 누구냐?

아이 : 글썸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니까요...

노인 : 뭐야?

## 3. 신병훈련소에서

새로 입대한 신병들 앞에서 훈련 조교는 군대 용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조교 : 앞으로는 “예, 알았습니다”, 또는 “저 말 입니까”와 같이 ‘다’와 ‘까’만 붙여서 사용한다.

이때 사회에서 반말만 하고 지냈던 신병이 조교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병 : ‘알았다’ 하고 대답하였다.

조교가 약간 언짢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였더니

신병 : ‘알았다니까’

조교 : ?????

하하하 ~ ~ ~

하하하~~~

4. 잠 정 구

여자들이 모이면 그들의 “야간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마련이다.

반금련이가 말했다

“샷이 시원치 않다 싶으면 항상 잠정구를 쳐달라고 하면 돼”

그러자 훈향이 풀죽은 목소리로 맞받았다.

“죽어도 OB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난 들 어떡하니”

5. 계속 나오는 오줌

순찰 경찰관에게 길가 공동수도에 매달려 있던 술꾼이 “날 병원으로 좀 데려다 주오”하고 말했다.

“왜요?”

“사실 여기서 소변을 보았는데 계속 나와서...”

순경이 전등을 켜고서 남자의 물건을 보니 이상이 없고, 그 옆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6. 얼마나 마셨길래...

술에 취한 두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내리는 문 옆에 해군 병사가 서 있었다. 술 취한 한 사람이 그 해군 병사를 버스 차장으로 생각하고 차비를 내려고 하였다.

“어이, 차장. 딸꾹! 두 사람 차비가 얼마지? 딸꾹!”

그러자 그 병사가

“아저씨, 저는 차장이 아니라 해군 병사입니다.”하고 대답했다.

“뭐? 해군이라고? 이보게, 친구! 우리 이제 큰일났구먼. 우린 지금 버스를 탄 게 아니구. 군함을 타고 있다가!”

7. 지하철은 기름으로 간다.

연세가 드신 어른이 밤 늦게 4호선 전철을 급하게 타시고는 젊은이에게

노인 : “이 전차가 기름(길음)으로 가는가?”하고 물으시니까

젊은이가 눈이 뚱그레지면서

젊은이 : “아닌데요, 전기로 가는데요”하고 대답을 하자

노인은 차를 잘못 탄 줄 알고 급하게 그냥 내리셨다.

하하하~~~

# 맥의 실내 공기는 안전합니까?



## 편집실

여러분들은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풍부한 시골에서 살았으면', '설악산 공기를 사서라도 마셔야 되는 것 아니야!'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새로 지었거나 깨끗하게 단장한 집에서 갑자기 눈이 따끔거리거나 현기증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실내 공기는 인간이 일생 동안 마시는 공기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80% 이상을 생활하게 되는 실내공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내 공기오염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조금씩 오염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녹색서울21' 기사에 겨울철 실내오염은 여름철보다 최고 25배나 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관련 자료를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 1.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선한 공기?

건강요소 = 신선한 공기+물+영양+ 운동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공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산소가 수분간만 끊어져도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약 1만 리터의 공기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대기오염으로 괴롭힘을 받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인 실내에는 언제나 깨끗한 공기가 차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야 하며, 추운 겨울에는 특히 유의하여 실내의 공기를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의 뇌가 활동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로서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결핍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또한 무기력하게 됩니다.

뇌는 단지 10초 정도만 산소공급이 끊어져도 의식이 없어지고 맙니다.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순간 가스온수기나 석유난로의 사용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된 보고에 의하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폐일수록 더러움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 공기가 더러워진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폐도 더러움이 심합니다.

한번 폐가 더러워지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더럽힘으로 인해 기관지나 기관지 벽에 있는 섬모(가는 털)의 기능이 나빠져서 가래가 밖으로 나가기 어렵고,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키기 쉽게 됨으로 호흡이 힘들게 되고, 가래가 붙어납니다.

이러한 우리들 주변의 환경적 여건에 따라 항상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실내 공기오염(Indoor Air Pollution)의 등장 배경

- ▣ 산업화와 자동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 ▣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건축자재의 재료의 다양화
- ▣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건물의 밀폐화
- ▣ 토지의 유한성과 건설기술 발달로 인한 실내공간 이용의 증가

## 3. 실내 공기의 오염원과 그 영향

실내 공기 오염원과 오염원이 우리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겠습니다.

● 라돈 : 흙, 샘물, 시멘트, 벽돌 등 건축자재에서 공기 중에 방출되는 무색, 무취의 방사 물질들은 장기적으로 폐암을 유발  
EPA는 연간 13만명에 이르는 폐암 환자 중 5천~2만명은 라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 가정의 흡연, 흡연 사무실 : 담배연기는 가스화 미립자를 포함 47,000여 개의 성분을 함유, 그 중 4,000여 종은 독성 물질로서 코, 목에 염증을 일으키고, 두통, 기관지염, 폐기종, 호흡기 환유발, 특히 폐암과 장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생물학적 오염물질 : 물에 젖었거나 습기찬 벽, 카펫, 가구류, 불결한 가습기, 건조기, 에어컨, 애완동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사상균, 바이러스, 꽃가루 등은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 급성폐렴,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유발, 눈, 코, 목에 염증, 호흡곤란, 현기증, 무기력, 발열, 소화곤란, 특히 유아, 노약자, 알레르기 환자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난방기구, 난로, 가스레인지, LPG,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소량 흡입해도 피로, 가슴에 통증, 두통, 현기증, 구토 증세를 나타내고 다량 흡입 시에는 치명적이라고 보고 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는 눈, 코, 목에 염증, 호흡기장애, 폐 기능 손상을, 그리고 미립자는 폐암유

발 물질이라고 합니다.

- 유기가스(VOC) : 청소용품, 방향제, 소독제, 취미용품, 자동차용품, 드라이클리닝 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벤젠, 에틸렌 등의 유기화학 물질 잔류물은 가스 형태로 방출. 눈과 호흡기 계통에 염증, 두통, 현기증, 기억 상실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중추신경계, 간을 손상하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포름알데히드 : 합판보드 따위의 압축 목재용품, 가구류, 건축 자재의 도료, 접착제나 난방제품의 연료가 연소 시에 발생. 무색, 자극적 냄새. 농도가 높은 것은 눈, 코, 기관지의 통증, 구토, 호흡곤란, 피로, 안구출혈,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살충제 : 벌레, 개미, 바퀴벌레, 쥐 등을 없애는데 사용된 후 공기나 토양을 오염. 눈, 코, 기관지의 염증, 두통, 근육경련, 흥분, 구토 등 심할 경우 중추신경계 간에 손상, 발암가능성. 사용 후 충분히 환기가 요망됩니다.
- 석면 : 단열이나 방열을 위해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광물섬유. 공기 중에서 석면 섬유 형태로 방출. 인체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않으나 장기간 흡입시 석면증, 폐질환, 폐암유발한다는 보고입니다.
- 납 : 자동차 배기가스, 납땀질, 납성분 함

유의 페인트. 공기, 물, 음식, 흙, 먼지 등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유포 미량도 치명적인 영향. 특히 태아, 유아에 민감하게 반응. 신장·신경계에 손상, 혈압상승 등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 4. 환기소요량

실내에 있는 1인당 매 시간당 30cmH(m<sup>3</sup>/h) 이상의 새 공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내 장소별 매 시간당 필요한 환기회수는 장소와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택(거실) : 1-3회, 주택(침실) : 1-2회,  
학교(교실) : 6회, 학교(도서관) : 8회, 사무실 : 6-10회, 병원 : 2회

#### 5. 가정에서의 공기 질의 개선 방안

- 환기를 자주 시킨다. - 실험결과 실외의 공기가 들어오는 경우 실내에 오염되어 있던 세균이 52%, 곰팡이는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기 중 미생물 오염 검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세균, 곰팡이 오염도가 백화점보다 최고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 쌓인 먼지는 자주 청소하여 없애도록 합시다.  
가정에서 바닥만 쓸고 닦는 청소의 개념을

바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에어컨, 선풍기, 가습기, TV, 컴퓨터 내부 등)의 세균 번식처 제거, 카펫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자주 청소합니다.

● 습도를 낮춘다. - 실내 적정 온도, 습도가 최선의 대책입니다.

● 보조 설비 사용

공기의 흐름이 많지 않은 경우, 공기 정화기 등을 사용하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세균 및 곰팡이의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담배를 끊게 하거나 실외에서만 피우도록 합니다.

●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았을 때 불꽃이 파란색인지 점검하고 나오는 유독성 물질들이 실내공기에 섞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환기용 팬을 설치/작동하고 욕실에도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 살충제나 방충제 대신에 봉산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실내용 화분들을 잘 활용해 봅시다.

공기 중에 있는 유해성분을 걸러주는 완벽한 공기청정 작용을 합니다(8평의 방에 5~6개 화분=1시간 이내에 유해성분이 거의 없어졌다는 보고).

또 식물들은 방안의 습도를 항상 적당하게 유지시켜 피부를 보호하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용 식물 중 크라톤은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는데 좋으며, 벤자민은 니코틴 성분을 없애 주면서 천연 가습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나라, 홍콩야자, 거베라, 아마릴리스, 담쟁 등의 식물들은 벤졸과 포름알데히드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가정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공질의 습은 흡착성, 통기성, 보수성, 배수성, 보비성, 축열성이 좋고 적외선의 효과도 있어 수질 정화제, 탈취제 및 발암물질과 화학물질 제거 용도 등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TV, 컴퓨터 등 양이온의 발생원으로 알려진 가전 제품들이 많으며 양이온이 많은 곳에서는 긴장도가 증가되고 흥분하기 쉽고 피로하기 쉽다고 합니다. 주위에 습을 두게 되면 음이온이 증가되고 양이온을 중화시켜 침실의 공기가 균형을 취하는 상태가 되어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된다고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 호칭을 할까요?

편집실

머느리가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자기야, 오빠”하고 호칭을 할 때는 듣기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앞으로 몇 년을 버티면 촌수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뭇을 배울까 하는 의문이 가지지 않음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호주제 폐지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핵 가족화가 가속화되는 현 세대에서 올바른 가족간 호칭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신습니다.

## 1. 촌수(寸數)란 무엇인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로서 대나무의 ‘마디’를 친 등(親等)으로 표시하는데 전용(轉用)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국대전]에 중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 촌수 계산 - 계촌법은 어떠한가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간주하여 계산되며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고,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 1촌을 더하여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며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당질)이 됩니다.

### 3. 친족의 호칭과 촌수

이런 친소(親疎- 가깝고 먼 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가 친족 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 4, 5, 6, 7,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친족호칭으로서 촌수 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8촌인 점은 조상 제사를 고조(高祖)까지의 4대 봉사(奉祀)를 원칙으로 하였고, 이리다 보니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



친족호칭에서 조(祖), 숙(叔), 형(兄), 질(姪), 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 재종(再從), 삼종(三從) 등의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의 조합으로 다양한 호칭이 발달되었다.

기 때문으로 봅니다.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향렬의 사람들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윗향렬(아저씨) 아니면 아랫향렬(조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촌수는 친소(親疎)관계의 척도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어느 세대임은 분명히 해주지 못합니다(예, 5촌은 당질(조카)이기도 하고, 당숙(아저씨)이기도 하다).

### 4. 숙(叔)은 아저씨, 질(姪)은 조카를 일컫는다

그래서 친족호칭에서 조(祖), 숙(叔), 형(兄), 질(姪), 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 재종(再從), 삼종(三從) 등의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의 조합으로 다양한 호칭이 발달되었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국의 영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것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촌수라 하겠습니다.

실제 호칭의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사촌은 오촌으로 당숙님, 여자는 당고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숙의 자녀들은 육촌으로 재종형제인데, 친형제에 준해 순위는 아주버님, 형님(여), 손아래 기혼은 서방님, 미혼은 도련님, 또는 아가씨로 부릅니다. 배우자 형제의 자녀는 조카, 사촌의 자녀들은 당질인데, 나이가 어릴 때는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 나이가 많을 때는 '조카님', '당질님'으로 높여야 됩니다. 어른들 앞에서 배우자를 부를 때는 '부인', '자기', '오빠', '○○씨' 등으로 불러서는 안되며, 남편은 '그사람', '그이', '아빤', '에비'로, 아내는 '집사람', '○○어미' 등으로 부릅니다. 또 어른 앞에서 유의해야 할 말은 '에비가 아직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호칭은 물론 말도 낮추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족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한국의 전통 관념입니다.



## 5. 처가와 사위의 관계

전통적인 한국 관습에 의해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위에게 대한 어른은 아내의 직계의 직근존속인 장인과 장모에 국한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족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말해 어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한국의 전통 관념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는 며느리가 시댁의 친족들과 친족관계의 호칭을 쓰듯이 사위와 처가도 나름대로 아내와의 관계에 따른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 처가의 계보와 명칭

처가의 계보는 사위와는 관계없는 단순히 아내의 계보이며 사위가 말하는 처족과의 관계 명칭도 친족 명칭에 '처'자를 붙여서 말합니다.

- (1) 웅서간(翁婿間) : 장인과 사위
- (2) 남매간(男妹間) : 처남과 매부
- (3)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 사이

나. 처가와 사위의 호칭

(1) 장인(丈人, 아내의 아버지)

- \* 장인어른, 빙장(聘丈)어른 : 장인을 직접 부를 때
- \* 장인어른 : 자기의 장인을 남에게 말할 때
- \* 빙장(聘丈) : 남에게 그의 장인을 말할 때

(2) 장모(丈母, 아내의 어머니)

- \* 장모님, 빙모님(聘母) : 직접 부를 때
- \* 장모님 : 자기의 장모를 남에게 말할 때
- \* 빙모(聘母)부인 : 남에게 그의 장모를 말할 때

(3) 사위(딸의 남편)

- \* 너·이름 : 장인이 사위를 부를 때
- \* - 서방 :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 \* 사위·서아(婿兒)·여서(女婿) : 자기의 사위를 남에게 말할 때
- \* 서랑(婿郎) :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 \* - 서방 : 처형이나 처제, 손위 처남, 처백숙부모들이 부를 때
- \* 매부(妹夫) : 처남이 매부를 통털어 부를 때
- \* 형부(兄夫) : 처제가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 재부(弟夫) : 처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 고모부(姑母夫) : 처조카를 부를 때
- \* 이모부(姨母夫) : 처이질이 부를 때

다. 기타 처족의 호칭은 직접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귀의 호칭으로 하고, 대화 중에 지칭(指稱)거나 남에게 말할 때는 "촌수보기"에서의 명칭으로 말합니다.

- \*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인 손위 처남이나 동서, 기타 아내의 친척은 서로가 사회적





# 유통상식

## Franchise System

서봉철(현 숭실대학교 교수)

### ▷ 경제활동과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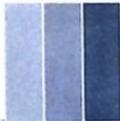
사람들의 생활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경제활동은 주로 생산활동, 소비활동, 그리고 유통활동의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활동은 서로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경제적 욕구에 맞추어 나간다. 경제활동의 생산기능을 통하여 각 개인의 생활이나 사회나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창출되고 이들이 유통기능을 통해서 소비자나 개인이나 집단에게 적절하게 분배된다. 특히 소

비는 유통활동에 따라 창출되고 확대되기도 한다. 이처럼 '유통'은 생산과 소비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기능이며, 한 나라의 GNP에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이러한 오늘날 유통활동은 실로 다양한 형태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전개되고 있다.

### ▷ 유통경로의 유형과 프랜차이즈 시스템

유통경로의 조직 및 관리형태를 크게 전통형 경로(conventional channels)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 VMS)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직적 마케팅 시



시스템(VMS)은 다시 관리형 경로(administrated channels)와 계약형 경로(contractual channels), 기업형 경로(corporate channel)로 나누어지며, 그 중 계약형 경로는 연쇄점과 소매상 협동조합,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으로 구분된다.

전통형 경로는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경로기능을 수행하는 경로 형태를 말하는데, 전통형 경로의 구성원들은 거래처의 선택에서부터 거래관계의 유지에 있어 거래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며 거래처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낮다. 또한 경로시스템 전체의 목표에 관심이 없으며 의사결정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전통형 경로는 제조업체, 중간상, 소비자간의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때 그때 변화한다. 또한 전통형 경로에 있어 구성원의 활동은 가격 메커니즘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된다. 다시 말해 전통형 경로에 있어 취급상품의 형태와 다양성, 촉진수준, 도매점의 입지 등은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경로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조정은 세부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계획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주로 교섭이나 협상과 같은 단기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전통형 경로와 달리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MS)은 경로 구성원 상호간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로선도자에게 의해 형성된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경로 구성원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본부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의해 움직이는 네트워크 형태의 경로 유형이다. 유형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시스템 내의 힘이 경로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며, 집중된 힘은 경로 구성원간의 기능 분업과 조정, 갈등의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경로시스템 전반에 걸친 효율성의 제고에 있으며, 경로선도자는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마케팅 흐름을 통합, 조정하고 동시화함으로써 기술, 관리, 촉진에서의 경제성을 달성하게 된다.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서비스 산출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제공하며, 경영자의 관점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로 구성원의 비용과 기능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미국경제에 있어 이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전통형 경로를 대체하는 지배적인 유통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유통형태가 바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1850년대 미국의 Singer Sewing machine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에 이를 도입하였고, 그 후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최근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유통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 ▷ 프랜차이즈 산업의 붐시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유통형태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프랜차이저(franchisor)와 프랜차이지(franchisee) 사이의 계약관계이고, 프랜차이저는 노하우와 훈련 등의 업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또는 이를 유지할 의무를 지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공통의 트레이드 네임 포맷(trade name format) 및 수준에 따라 영업을 하며, 프랜차이지의 사업에 대하여 자신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출자하는 자를 말한다.

즉, 프랜차이즈란(franchise)란 프랜차이저(franchisor)와 프랜차이지(franchisee) 사이의 계속적 관계로써 프랜차이저(franchisor)의 일련의 지식, 이미지, 성공, 제조 및 마케팅 기법을 프랜차이지(franchisee)에게 제공하

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통산업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미국에서 탄생하여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 보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1978년 외식업 위주로 도입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 소매매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고, 이 시스템에 의한 일본의 총 매출액은 20조 엔에 육박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연간 매출액 약 40조원, 도소매 매출액의 약 35%로 추정되며, 가맹점수 15만여 개, 업종수 250여 개, 60여 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크게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중국 및 러시아, 동구라과 등을 여행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손쉽게 접할 수가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과거 사회주의 나라들에게까지도 확산되어 현재 세계 각지에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프랜차이즈 협회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사회는 변모하기 시작하여, 젊은 층의 가족들이 늘어나고, 교외에 살며,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이 붐을 일으켰다. 하이웨이는 급속하게 정비되었고, 간선도로 주변에는 드라이브 인(drive inn)이 속속 문을 열게 되었다. 대중적 레스토랑



랑과 호텔에 대한 욕구도 커졌으며,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은 전국적으로 빠짐없이 문화를 전달해 왔다.

미국은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으나 그 반면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나자 전선으로부터 귀환한 젊은이들은 일할 직장을 찾고 있었다.

이런 미국식 생활 방식(American way of life) 가운데서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성장하게 된다. 그 대표격으로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과 맥도날드의 예를 들어보면, 어느 것도 미국의 지방에서 출발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의 점포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2개 체인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전형으로 손꼽고 있다.

이와같이 맥도날드와 켄터키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변창은 최근 미국사회의 구조에 적합하고, 미국인의 기질에 파장을 맞춘 것이었다.

많은 미국의 기업이 프랜차이즈를 향하여 닳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며, 던킨도너츠는 1950년에 창업하였으나 1956년부터 프랜차이즈화하였고, 버거킹도 1951년에 창업하여 1957년에 프랜차이즈화하였으며, 홀리데이 인은 1954년부

터, 웨라톤은 1962년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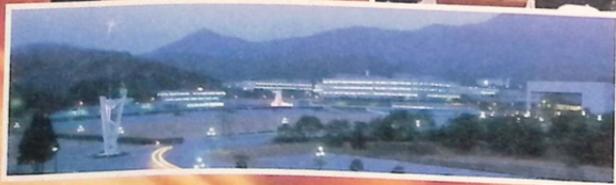
그 후 약간의 시간을 거쳐서 프랜차이즈의 보급은 컨버전(conversion)형이라는 제3형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모든 산업에 도입되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붐시대를 이루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유통산업이다. 야심적인 프랜차이즈와 생활 확보를 지향하는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사회유식자나 정부당국자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인 요망을 이곳에 걸고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소수민족의 고용 기회 확보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장려해 왔고, 전선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의 재취업을 위해서도 큰 성과를 거두어왔다. 일본에서는 거품경제 붕괴 후 고용증대와 경제회복의 유효방책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노동력 재배치를 위하여 고용을 흡수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업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까지 이르고 있다.

공사11기  
총동창회 부회장

# 총동창회 소식

- ♣ 이사회
- ♣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 ♣ 기수별 활동
  - 미주 서부지회 소식
  - 동문 친선 바둑 대회
- ♣ 전역자 현황(기수별 전역자)
- ♣ 공사 졸업 동기생회 명칭
- ♣ 주소변경
- ♣ 알립니다



회칙 제5장 17조에 의거 11차년도 총동창회 이사회가 7월 22일에 공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임원기수(3기~31기)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는 회무 보고에 이어 11차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 자금 조성 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 I. 회무보고

가. 회원현황

나. 기금현황

기금 적립현황

기금 인수현황

다. 평생회비 납부현황

라. 기별분담금 납부현황

## II. 심의안건

### 1. 계획 및 기금 조성(안)

가. 11차년도 사업계획(안)

장기총회(1회) · 이사회(1회) · 회지발간(2회) · 총동창회 상(52기) · 3사 행사 지원 · 기  
지 방문 · 운영기수 이사 간담회 · 경조사 · 해외동문 지원 · 친선 바둑대회, 사무실 운영 등

나. 자금조성 계획

	비 용	수 입	비 고
1	기별 분담금	15,800,000	임원기수(3기~31기)
2	참조		
	일반찬조	4,000,000	
	11기사관찬조	35,000,000	
3	이월 운영금	2,000,000	
4	광 고 비	4,000,000	
	계	60,800,000	

### 2. 안건 토의

가. 총 동창회보의 紙型 변경

紙型은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책제목은 동창회보에서 同窓會誌로 변경

나. 2기 사관 임관 50주년 행사 지원건 및 동문 인적 자원 관리(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적립기금 및 운영금 현황

### 1. 평생회비 납부현황(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 가. 평생회비 완납 기수

1, 2, 5, 6, 7, 8, 9, 10, 11, 14, 15

#### 나. 11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명단(2003. 12. 15. 현재)
3	86	65	21	김영집, 정진돈, 박귀용, 이용준, 송명현, 국대현, 정재락
4	65	55	10	김제두, 최영근, 유현주, 이종국
12	42	36	6	
13	46	41	5	
16	56	40	16	
17	60	47	13	신영실, 임홍규, 상석곤
18	64	49	15	박문현, 조남홍, 김재광
19	72	39	33	박상인
20	94	41	53	김점태, 이사룡, 김광영, 안상복, 박동형, 김규식, 김덕선, 이정호, 김원춘
21	97	32	65	김동기
22	103	28	75	김재승, 임인빈, 오봉진
23	109	28	81	이수현
24	130	49	81	백영남
25	124	25	99	

기수	현재인원	납부인원	미납인원	납부자명단(2003. 12. 15. 현재)					
26	123	15	108	이상길B					
27	125	12	113	신해철					
28	122	12	110	윤상보, 이태용, 황신섭					
29	141	30	111						
30	152	8	144						
31	166	7	159	장영익					
32	168	2	166						
33	173	12	161	한상균					
34	167	7	160						
35	252	5	247	강규식, 류영관					
36	256	5	251	나문관	44	211	4	207	
37	252	2	250		45	211	0	211	
38	233	1	232		46	230	0	230	
39	222	1	221		47	201	0	201	
40	243	0	243		48	193	103	90	
41	242	1	241		49	199	0	199	
42	277	0	277		50	193	0	193	
43	271	0	271		51	203	0	203	
합	현재인원 : 6,973		납부인원 : 1,436			미납인원 : 5,537			

※ 11차년도 납부자 : 47명(2003. 12. 15. 현재)

회비는 납부하셨으나 기수를 명기하지 않으신 기예호(7.25), 성신모(7.30), 이영만(8.1), 김용희(8.27) 회원께서는 기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 납부자 현황

(2003년 6월 30일 현재)

기 수	납 부 자 명 단
3	고승만, 고재원, 공사언, 김경복, 김규홍, 김동호, 김병기, 김삼용, 김삼형, 김성하, 김시연, 김인기, 김중훈, 김진섭, 김진환, 김필원, 박석현, 박영호, 박우식, 박형주, 백낙승, 백정석, 소명옥, 손철영, 손호인, 심장섭, 양혁재, 엄용식, 윤경환, 윤배옥, 윤봉섭, 이경영, 이만섭, 이명완, 이상복, 이상운, 이원재, 이인행, 이종학, 이필원, 이학수, 이현동, 이혁부, 장동준, 전복규, 전승우, 정규혁, 정진섭, 정함재, 정홍식, 조박현, 조봉현, 조소하, 지경근, 최동호, 최항기, 홍천희, 김태석
4	구자춘, 김석용, 김용주, 김재운, 김환중, 박병준, 박상조, 박승준, 박예재, 박오화, 박웅진, 박재진, 박전하, 박차식, 배강희, 서극수, 서동열, 신동만, 안우일, 양승문, 오수근, 유낙영, 유동천, 이래석, 이순요, 이시우, 이조한, 임병열, 장남춘, 장무익, 정구원, 정낙영, 정봉규, 정봉현, 정연봉, 정진모, 정현국, 조경래, 조봉구, 조옥찬, 최병기, 최세천, 최준식, 한영규, 홍사학, 홍의태, 홍재학, 황규복, 김의경, 박찬득, 양신석
12	강영식, 김규립, 김문수, 김부수, 김영식, 김영용, 김원인, 김태규, 나광수, 남동현, 민항식, 박덕희, 박상철, 박원규, 박장길, 박춘택, 배기준, 배양일, 백광현, 신동운, 심재운, 안봉열, 우대석, 우정수, 이명환, 이상경, 이상순, 이종득, 이종양, 이홍우, 전대우, 정민남, 정관중, 최대식, 홍종건, 서호선
13	권희본, 강신해, 고명준, 좌갑순, 김무신, 김양수, 김영부, 김종식, 김진삼, 김진석, 김준인, 문기철, 민양식, 손덕규, 안병하, 안병철, 유근우, 유병각, 윤재명, 이광평, 이기환, 이병길, 이승대, 이승배, 이완구, 이정호, 이준순, 이종대, 이종화, 이태규, 이희관, 장덕수, 정영호, 정해성, 지창수, 조건환, 최길용, 최영덕, 최인일, 최중덕, 태중민
16	강철수, 권명남, 김문기, 김성구, 김신흥, 김의림, 김정갑, 김정욱, 김종환, 김현석, 김희동, 박성국, 박경용, 박영기, 박영환, 배정영, 배충정, 백동기, 서효창, 양길수, 오창모, 이상민, 이선기, 이상우, 이수용, 이재기, 임정빈, 장정동, 장진수, 권광남, 정해창, 주창성, 지양인, 최동철, 최명상, 최양용, 신무광, 이은양, 정준식, 최동빈
17	강희간, 고영섭, 고종무, 권혁중, 김문수, 김상재, 김석우, 김용수, 김운태, 김우수, 김익창, 김재수, 김중현, 김준수, 박용택, 배종수, 서정운, 송대성, 안광수, 어수연, 원철희, 유성일, 유정용, 유현준, 윤병인, 이규대, 이규희, 이문호, 이성윤, 이음대, 이한호, 이철희, 전영배, 장상용, 장호근, 조규식, 차옥환, 한형택, 황창번, 박윤교, 손준호, 차선규, 최복현, 최석권
18	곽조휘, 강재필, 고정훈, 구세환, 구정희, 곽은용, 김두연, 김성진, 김종식, 김재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곤, 김현규, 나금복, 류효열, 박경점, 석현수, 선치수, 손인익, 송희전, 신명호, 신표근, 엄이웅, 오인성, 오병환, 오환근, 윤관중, 윤봉수, 이기택, 이봉길, 이선희, 이영준, 이정욱, 이진학,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장용주, 전영훈, 정원태, 최석상, 최태호, 천기광, 허 한, 김정수

기 수	남 부 자 명 단
19	김덕실, 김명립, 김영철, 김인열, 김정진, 김현진, 박 열, 박희채, 백철인, 서경수, 손영수, 손정환, 양홍진, 유병구, 유병권, 유승렬, 윤정채, 이균신, 이강욱, 이계오, 이규찬, 이달호, 이성울, 이송호, 이영순, 이인형, 이종관, 임중태, 장희천, 정성진, 정하섭, 조명래, 조용희, 지광석, 편세영, 하석태, 홍강표, 김복만
20	강만수, 김동래, 김삼교, 김성두, 김성일, 김오비, 김우식, 김정기, 문태일, 박 영, 백재현, 손준영, 이정학, 이영원, 이영희, 이재원, 이종록, 이치훈, 장성문, 정재택, 정철호, 조태연, 차종권, 최삼용, 한광성, 한길성, 한준수, 허원욱, 홍상열, 이병기, 이석규, 임근배
21	강남식, 권 근, 금기연, 금영수, 김상인, 김영배, 김영학, 김태욱, 명철원, 민병홍, 박경석, 박희영, 배민섭, 배창식, 박천수, 성광준, 성봉환, 송동근, 윤희철, 이광영, 이광희, 이수남, 장성태, 정용운, 조오현, 한홍섭, 홍종백, 황사홍, 박건웅, 유관욱, 황성창
22	강수준, 강희찬, 김은기, 남백우, 민형기, 배효직, 백계근, 손준열, 송인선,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경환,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장현섭, 정갑순, 홍재근, 최병운, 최승열, 한종호, 류양수, 이광희, 한웅섭
23	구본담,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형선, 박종철, 이계훈, 이영덕, 이은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정경모, 정규덕, 정대주, 최진수, 하창호, 조원진, 함경만, 김삼문, 박종화, 윤남수, 이상진, 정희균, 정희진, 한규섭, 허일영
24	강철혁, 고재봉, 권오석, 공운석, 김광목, 김명익, 김신원, 김익경, 김재철, 김태열, 나용곤, 나재남, 노성래, 류동수, 민경식, 박준홍, 박진열, 백영남, 백은호, 신진섭, 송기백, 안창수, 안빈용, 엄경식, 이기용, 이월중, 이영재, 이영종, 이용상, 이재강, 이철순, 전남채, 정남주, 정성화, 정점조, 정필훈, 주신희, 주중수, 천두봉, 최재호, 최재희, 최종용, 최홍진, 허봉재, 현일수, 홍순화, 송광호, 이봉운
25	강신환, 고덕천, 구도근, 김국휘, 김진태, 김중흠, 김정렬, 류홍규, 박우성, 박춘환, 손명환, 심재명,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이귀형, 이석찬, 이성재, 임우규, 장래환, 장희태, 최미락, 최승규, 홍건표, 권용국
26	김태영, 박인규, 배중영, 변종돈, 송길수, 심상철, 유지훈, 윤덕중, 임상현, 최병학, 최지수, 허종순, 이봉준, 전성관
27	고덕규, 고용하, 권오성,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창권, 손태용, 최동환, 한병국, 홍성은
28	김남수, 김주인, 신영덕, 윤 우, 음종민, 최상일, 하태직, 김명호, 조민식
29	김경호, 김석중, 김성진, 김영권, 김영본, 김영철, 김원규, 김철생, 나충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주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장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한봉규,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30	강성호, 김원규, 김용환, 김진환, 장덕진, 정규호, 차주섭, 채종목
31	강경한, 김철승, 신재현, 조환기 김홍준, 임봉수

기 수	남 부 자 명 단
32	김현곤, 심부수
33	박수철, 유준중,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재홍, 장경식2, 정영철, 정희주, 심동섭, 이동교
34	감수봉, 송광혁, 안상철, 안선환, 양희중, 정상길, 정찬영
35	김종은, 민태기, 서완석
36	김성균, 김응문, 박종국, 박홍식
37	이재섭, 최기명
38	이정호
39	최정모
40	
41	김민호
42	
43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46	
47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분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정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훈, 남택수, 문보연,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명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일,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훈,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권석, 최규완, 최성호,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50	
51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로 튼튼하게 성장·발전합니다

2. 제11차년도 찬조 현황(협조와 지원에 감사합니다)

가. 기별 분담금 찬조(임원기수 3기~31기)

	기 수 별	납 부 기 수
40만원	3기~10기	완 납
60만원	11기~31기	11, 12, 14, 15, 16, 17, 18, 19, 20, 23, 31

※ 7~10차년도 실적(1~30기)

('99. 7. 1.~'03. 6. 30.)

22기	7, 8차년도 미납
24기	7, 8, 9차년도 미납
25기	9차년도 미납

나. 특별 찬조

성 명	금 액	비 고
김 대 욱	100만원	전 참모총장
서 동 열	10만원	전 참모총장
김 홍 래	10만원	10차년도 회장
한 정 복	20만원	10차년도 부회장
김 상 태	100만원	공군 전우회장
이 한 호	100만원	참모총장

회비납부안내

● **會員 회비** : 기본회비(평생회비)

- 10만원(1회 납입으로 종료)

※ 미납자에게는 평생회비 지로용지 발송

● 기별 분담금 : 2003. 7. 1. ~ 2004. 6. 30.

- 3기 ~ 10기 : 40만원

- 11기 ~ 31기 : 60만원

● 은행계좌

- 평생회비 : 지로용지 사용

혹은, 우리은행 319-239049-01-001(예금주: 공사총동창회)

- 기별분담금 : 우리은행 319-269376-02-001(예금주: 사무총장 최문강)

● 연락처 (총동창회)

- 주 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358-1 공사총동창회 우편번호 : 156-808

- E-mail : [airfa04@hanmir.com](mailto:airfa04@hanmir.com)

- 전 화 : (02) 823-1091

- fax : (02) 823-1092

다. 운영기수(11기 이상) 개별찬조(2003년 12월 22일 현재)

(단위 만원)

찬 조 액	성 명
700	이광학
300	양민호
200	이태식, 허차동, 서봉철
100	김동호, 김원규, 김용찬, 명영남, 민영일, 박용이, 신보연, 송문호, 안병문, 윤봉환, 이승오, 이이철, 임지호, 전세일, 정 훈, 최동환, 최문강, 최희영
70	박재희
50	권태정, 김광현, 김달수, 김옥주, 윤동섭, 정지수, 신기순, 심기섭, 양종택, 하길수, 한계섭, 한만성
30	김판수, 이규형, 한영석, 한호석
20	김두석
계	41/48

※ 특별찬조(100) : 박수길, 배말희(고 남석훈 미망인) 명예회원

## 기수별 활동

기 별	활 동 사 항
1기	<p>매월 테마 있는 행사를 통하여 노익장을 과시하고 노년의 우정을 맘껏 나누고 있음.</p> <p>9월 : 강화도 해수 온천 겸 석모도, 보문사 관광            10월 : 호반의 도시 춘천 관광(소양호, 산림 박물관)            11월 : 스카이랜드 불가마에서 세상의 찌든 땀과 때를 벗기고            12월의 망년회로 새해를 기다리는 계획</p>
2기	<p>졸업/임관 50주년 행사를 10월 18일(토)에 모교인 사관학교와 증원지에서 재미회원을 포함한 92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하였으며, 공군회관에서 만찬으로 50년 세월의 우정을 함께하였다.</p>
3기	<p>송년 모임을 지난 11월 26일에 공군회관에서 부부 동반으로 가져 아쉬운 한해를 보내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한 생활을 다짐하였다.</p>
5기	<p>매월 1,3주 바둑 모임과 2,4주의 등산 모임, 그리고 낚시모임의 활성화로 동기생 간의 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p>
8기	<p>지난 10월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룰 때 백담사를 거쳐 내설악과 통일 전망대를 거쳐 춘천 댐으로 하는 추계 동기생 단합 단풍 관광을 하였다.</p>
11기	<p>충동창회 운영기수의 막중한 소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p> <p>7월에는 동성대 푸른 잔디 위에서 힘과 기를 겨루었고,            8월에는 모교를 방문. 메추리 시절의 애환을 회상하였으며,            10월에는 서산기지를 방문/격려 후, 깊어 가는 가을의 고운 들판을 감상하면서 젊은 날의 우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p>
12기	<p>동기생 소식지를 매 월별로 발간 배포하여 상세한 회원 근황을 알리고, 또 이-메일의 활성화로 비상 연락 체제 활용 및 상호간 정보 전달/ 교환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다.</p>
14기	<p>매월 14일을 충조 월례회의 날로 정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애를 다지고 있으며, 2004년 1월 14일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다짐의 시간인 신년 교례회로 모임 계획을 하고 있다.</p>
19기	<p>8월 21일에는 김구섭 회원이 국방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고, 김명립 회원은 10월 21일에 모교의 37대 교장으로 취임하는 경사를 맞아 회원간 결속을 다졌다.</p>

## 기수별 활동 (미주 서부지회 소식)

- 1 캘리포니아(남가주·북가주)를 중심으로 1기 선배님 10명을 포함하여 55여명의 동문들이 활발하게 연락이 되고 있으며,
- 2 8월31일~9월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새도나(아리조나주)에서 동문단합모임을 통한 우의를 다지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을 나누었으며, 특별히 이 자리에는 세 분의 1기 선배님과 윤응렬 명예 회원님도 함께 하셔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었다.
- 3 10월11일에는 매년 군별로 돌아가며 개최하는 삼군사관학교 친선모임을 해사가 주관하여 역척스럽게 살았던 생도시절을 회상하는 옛정을 새기고 함께 사는 아름다움도 나누었다.
- 4 12월7일(일)에는 서부지회 동문 송년모임을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져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을 큰 소망을 함께 나누는 덕담을 하며 더 활성화되는 동문모임이 되기를 다짐하였다.
- 5 2004년 1월 18일~1월 31일 기간에는 동부(버지니아, 캐나다포함)지역 동문들이 로스엔젤레스 북쪽의 휴양도시 Lompoc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 기간동안 서부지회와 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 기수별 활동(동문 친선 바둑 대회)

총동창회(회장 이광학)에서는 동문 선후배간의 화합과 친목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11월 19일(수) 공군회관(2층) 컨벤션 홀에서 원년 친선바둑대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 날 모임에는 40여명의 기우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특히 기우회 고문이신 윤자중(1기) 전 총장께서 참석하시어 금년대회를 기점으로 동문들의 친선바둑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당부하시는 축사와 棋道五得(得好友, 得人和, 得校訓, 得心悟, 得天壽)을 통항 정신 수련의 이점을 강조하셨다.

이 날 대회는 A, B, C 3개팀으로 나누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묘수 탐색에 골몰하면서 열전에 열전을 거듭하였으며, 각 팀의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A팀(1~5기)	B팀(6~9기)	C팀(10기 이후)
우 승	김종남(5기)	박기순(7기)	송중호(10기)
준우 승	송기철(5기)	조희열(9기)	유성봉(15기)
장려상	최홍선(5기)	이방택(6기)	신병화(11기)

이 날 특별 행사로서는 한국기원 김수영 7단이 참석하여 다면 지도기를 두어 대회를 한껏 빛나게 하였다.





## 전역자 현황(기수별 전역자)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3. 07. 31.	준장	금기연	0002	21	03. 10. 31.	대장	김대욱	0002	15
	준장	성봉환	0002	21		대령	허원욱	7509사	20
	준장	김영곤	0002	21		대령	송기천	4009	20
	준장	이권호	0002	21		대령	강유훈	1409C	20
	준장	유재홍	0002	21		대령	최상일	1409F	20
	중령	이태형	7008	27		대령	박동형	1709	20
	소령	강성현	1407F	37		대령	강기왕	4009	20
	소령	김성수	1407F	37		대령	김영한	1409F	20
	소령	오영덕	1407F	38		대령	이정호	1709	20
	소령	김종채	1407F	38		대령	홍갑선	1709	20
	소령	유영우	1407F	38		대령	석상오	1409F	20
	소령	최승지	1407C	38		대령	이치훈	1409F	20
03. 08. 21.	준장	윤차영	0002	23	대령	김관수	1409F	20	
03. 08. 31.	중령	함세훈	1408F	32	대령	최삼용	1409F	20	
03. 09. 02.	대령	양형구	4009	24	대령	한광성	4609	20	
03. 09. 19.	대위	김태호	1406F	48	대령	김태진	7009	20	
	소령	이한기	1407F	44	대령	김진기	6709	28	
03. 09. 30.	중령	김경수	7508	32	03. 11. 13.	중위	김남현	0003	51
	소령	송팔성	7507	32		<b>수고 많이 하셨습니다.</b>			
	소령	한신구	7007	36					



## 空軍士官學校 卒業 同期生會 名稱

기 수	명 칭	기 수	명 칭	기 수	명 칭
1	홍우회	21	여명회	41	혜루회
2	이공회	22	쌍매회	42	푸르매
3	삼정회	23	총매회	43	다솜회
4	사봉회	24	웅비회	44	다물회
5	신성회	25	휘운회	45	새너을
6	일성회	26	아람회	46	돈움회
7	철성회	27	석로회	47	미르회
8	팔진회	28	애채회	48	회두리
9	은하회	29	휘조회	49	한음회
10	십철회	30	창로회	50	다울회
11	비성회	31	한돌회	51	천랑회
12	윤성회	32	벽공회	52	
13	패공회	33	비호회	53	
14	충조회	34	한울회	54	
15	성익회	35	청람회	55	
16	승운회	36	한얼회	56	
17	봉우회	37	한나래	57	
18	흑매회	38	청송회	58	
19	태성회	39	가치늘	59	
20	칭익회	40	해밀회	60	





## 주소변경

(2003년 7월~11월 30일 현재)

기 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김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아) 103동 1202호	463-010	031-785-2771
	박희민	인천 서구 가정2동 두우(아) 102-119	404-752	032-563-1696
2	송문채	서울 관악구 봉천1동 1698-1 보라매삼성(아) 104-302	151-752	876-2814
	유성용	서울 용산구 이촌동 430 엘지한강자이(아) 110-203	140-031	031-793-0153
3	고승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 2075-603	440-300	
	박형주	경기 수원시 매탄동 1269-1 B05	442-370	031-212-5584
5	김홍규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340 그랜드빌 A-201	157-866	
	박석환	대구 수성구 상동 72번지 정화우방파레스 102-903	706-775	053-762-2921
	송기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12번지 효성양지마을 1-206	560-281	063-286-3626
	임학용	서울 종로구 혜화동 26-23	110-530	765-4929
6	이상경	광주 남구 진월동 풍림(아) 101-1706	503-330	062-672-6628
	이재규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용화마을 105-302	449-912	031-285-9965
	김석희	경기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486.487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1차(아) 111-1501	449-157	031-283-3466
7	강영식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1708 두산(아) 108-103	151-782	3285-8027
	최호식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143 신창무궁화(아) 101-1802	449-771	031-283-4821
	한주석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46-11 현대슈퍼빌(아) B-1104	137-872	584-2393
8	김두선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 503-1504	153-765	011-9819-3301
	김성환	경기 김포시 북변동 806 풍년마을 삼성(아) 305-1702	415-720	031-988-2529
	이상진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상도중앙하이츠빌 103-1202	156-030	
	김도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미케란레르빌주상복합(아) B-702	463-010	031-782-0857
9	정원호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동 셋별마을 라이프(아) 110-203	140-031	793-0153
10	한정복	경기 용인시 성북동 731번지 성동마을 LG빌리지6차 602-401	360-190	
	권영력	경기 용인시 상현동 869번지 만현마을 LG자이(아) 908-904	449-130	031-262-5153
	김윤재	서울 송파구 문정2동 150 채필리(아) 214-1104	135-928	
	이달화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0-95	140-724	
11	삼기섭	경기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493번지 하마비마을 동부센트레빌(아) 101-162	140-031	
	송문호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I-Park 302-1801	463-010	031-609-3663
13	이강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번지 시그마2 A-624호	463-808	
14	이역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청구(아) 204-401	463-921	
15	박오상	경기 용인 수지읍 신봉동 870번지 LG5차 516-2003	449-150	031-308-6453
	배양용	경기 용인 기흥읍 상갈리 461 금화마을 대우현대(아) 104-1204	449-956	
	조국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시범아파트 18-71	150-894	783-0836

기 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6	박경웅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3-100 마이빌 C동 401호	360-190	043-254-2915
	이성우	서울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 23-501	100-779	2252-8762
	정해창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1086번지 반포주공(아) 10-202	137-770	
17	정구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0-7 501호	135-890	
18	김종식	경기 용인시 구성읍 중리 817번지 어정마을 서희삼성(아) 105-902	449-574	031-274-3463
	김정수	서울 강서구 화곡1동 1145 롯데낙천대(아) 101-1604	157-011	2065-6520
	김진철	서울 마포구 도화2동 현대2차(아) 210-702	121-773	711-9625
19	권세영	경기 용인시 상현동 851 상현마을 현대성우1차(아) 297-1102	449-130	
	백철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쌍용아파트 602-307	560-796	063-272-1269
	김영철	서울 마초구 성산동 601 대림(아) 102-402	121-250	372-0858
	박 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아) 6-1107	150-881	761-5990
	송병호	서울 송파구 잠실동 247-8 우정주택 103호	138-220	
	안동원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74 현대(아) 101-1003	135-842	512-1085
	양홍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부영(아) 619-701	412-270	031-966-6998
	엄영성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장성마을 건영(아) 301-902	411-707	031-917-6738
	유병권	경기 안양 동안구 호계동 21-1블록 샘마을대우(아) 104-1702	431-080	
	유태형	서울 도봉구 도봉동 한신(아) 116-307	132-731	
	이강욱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 10-302	137-759	534-5100
	이개백	서울 강서구 방화3동 도시개발 5단지(아) 503-1212	157-223	
	이상배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77-4 목마르티빌 B-102	137-807	3482-8211
	이송호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616-4	355-884	041-934-4650
	임종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6 삼성쉐르빌 3905	156-010	
정하섭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현대홈타운 솔레마을 114-1303	449-562	031-287-7737	
20	이상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95번지 우성아파트 201-1508	150-760	
	김성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4차 e편한세상 1102-802	152-888	
21	정성구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숲속마을 대우(아) 105-403	415-811	031-984-8816
22	정갑순	서울 강서구 방화동 817 동성(아) 106-1111	157-220	
23	장근덕	서울 양천 북4동722-5 세종그랑시아(아) 103-701	158-814	2645-4869
26	유지훈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현대홈타운 505-1501	422-060	032-351-6017
	박인규	서울 양천구 목2동 우성(아) 103-104	158-779	
29	이장근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삼성(아) 6-2104	449-531	053-311-4364
	김성전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61-1	411-350	031-907-6968
31	김철승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 대아아파트 107-701	157-200	
34	박찬형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580 대호마을 1002-401	411-704	
35	김중은	경기 평택시 신장동 690번지 공군(아) 타동 402호	463-748	031-667-1852
36	이선용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2-2 현대홈타운 411-2304	422-060	



결혼을 축하 드립니다. (2003년 7월~12월)

월 일	기 수	성 명	관 계
7월 27일	18	선치수	차남
10월 3일	19	송창인	장녀
	39	배천호	본인
10월 11일	21	명철원	장남
10월 12일	21	성봉환	장녀
	19	이상배	삼녀
10월 26일	5	윤춘현	차녀
11월 6일	3	최동호	삼남
11월 8일	18	윤봉수	장남
	19	정성진	장녀
	21	신보현	차녀
11월 15일	19	최영선	장녀
11월 23일	21	장원초	장녀
12월 13일	22	김정근	차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3년 7월~11월)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7월 9일	2	전창록	별세
7월 14일	7	최인걸	별세
8월 20일	4	김의경	별세
9월 17일	12	남농현	별세
9월 19일	44	이한기	순직
	48	김태호	순직
10월 2일	8	오대기	별세
10월 16일	3	국한영	별세
11월 13일	51	김남현	순직

\* 알립니다 : 앞으로 哀事 시에는 총동창회의 弔旗로 弔花를 대신합니다.



## 편집후기

27호까지의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지형이 변경된 참신한 모습으로 발간한 회지가 회원님들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과,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명영남, 서봉철, 안병문 편집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연말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지의 탄생을 위해 수고하신 교재항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 기고안내

연 2회(매년 1월 1일, 7월 1일) 발행되는 동창회지에

논단,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전문 분야 소개 및

생활잡기(건강관리, 취미활동, 관심분야 등) 등에 관한 내용의 기고를 언제든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일 : 2004. 1. 1.

발행인 : 이광학

편집인 : 최문강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58-1(우 156-808)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E-MAIL : airfa04@hanmir.com

HOME PAGE : www.afa.ac.kr

ENERGY KOREA



산유부국의 꿈 ★

한국석유공사가 이루어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국내대륙붕개발 ● 해외유전개발 ● 시추선사업 ● 석유비축사업 ● 석유정보사업

## 우리가정과 국가경제의 기초자원 - 석유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적인 유전개발로  
한국석유공사는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석유공사의 소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

<http://www.knoc.co.kr>